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1
River & Culture



차인환 | 광양만권환경연구소 생태연구실장
(rescuek911@yahoo.co.kr)

순천만습지의 역사와 문화

1. 지명과 지형으로 보는 순천만

순천 시내를 관통하여 흐르는 동천(33km)과 이사천(70km)을 따라서 내려가면 넓은 갯벌이 펼쳐진 순천만습지가 펼쳐진다. 순천만의 좌측으로는 여수반도가, 우측으로는 고흥반도가 순천만을 호수처럼 품고 있다. 1950년대까지도 순천 시내로 바닷물이 올라왔다는 것을 보면 순천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라는 것과 바닷물에 의한 피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천만습지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먼저 순천의 지형과 여기에 유래하는 지명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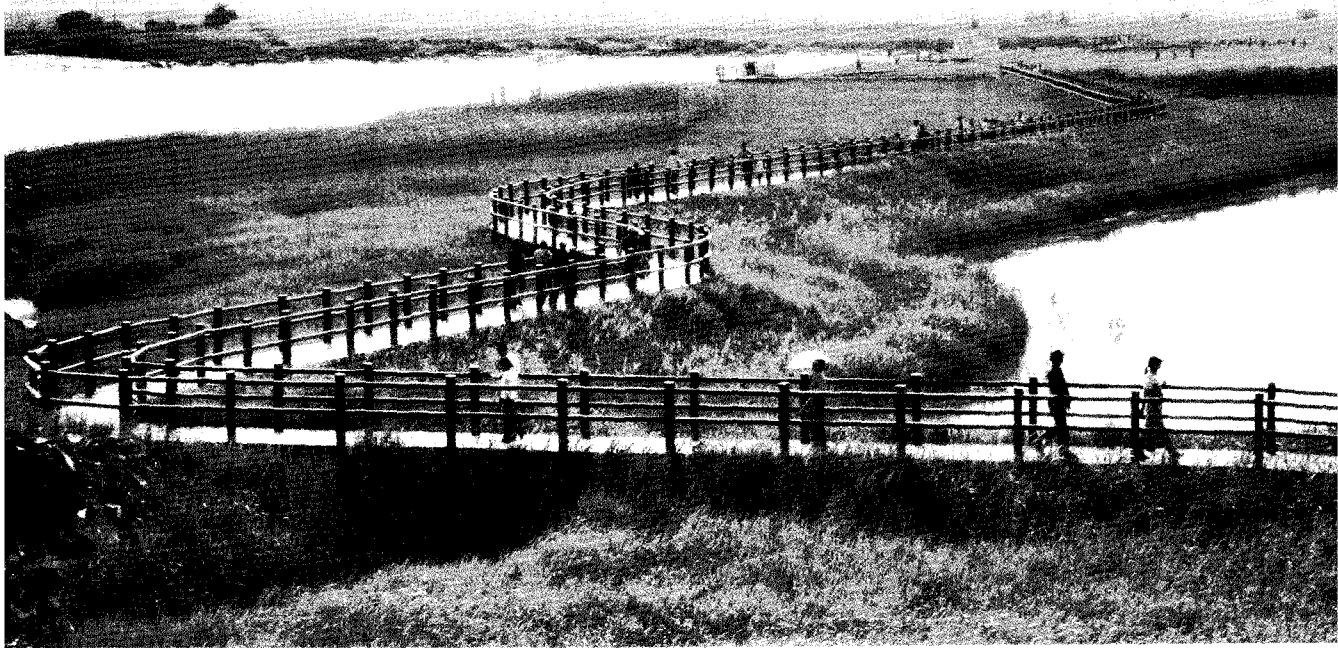
(그림 1) 동천과 이사천 항공사진(순천시)

가. 순천의 역사

순천시사에 나오는 순천시의 역사를 요약해 보면 순천의 가장 오래된 이름은 '모래드리' 또는 '사평(沙平)'이라고 추측된다. 김정호는 「여도비지(輿圖備志)(1853)」에서, 순천 도호부를 삼평(叡平), 사평, 무평(武平)이라 했다고 한다.

순천시 남내동 옥천 옥천교 남쪽의 꺼진 물목을 고래목(鯨項), 경동으로 부르고 있으며, 지금도 물길 이동의 흔적이 뚜렷하다. 이 두 내의 강터는 1935~1940년 제방공사가 끝나기까지 모래가 차지한 면적이 엄청나게 넓었다고 한다. 해마다 홍수가 나면 강바닥이 주변지역보다 높아서 풍덕동 양쪽 들판에 물이 찬다. 1962년 8월 큰 폭우로 피해가 엄청났던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에 '모래드리'·'사평'의 지명유래를 짐작할 수 있다.

별량면과 인안동의 경계가 되는 검석교(檢石橋) 일대가 '사평(沙坪)'으로 검석교 제목풀이에 나오는데, 4km 이내의 고인돌 또는 유물 산포지가 사평(沙平)은 18개소이지만 사평(沙坪)은 2개소뿐이다. 동네사람들은 순천만으로 들어가는 이 하천을 '검식기'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지형의 변화, 지대의 크기, 유적이나 유구,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서 '사평(沙平)'이 순천시 일대의 가장 오랜 자연지명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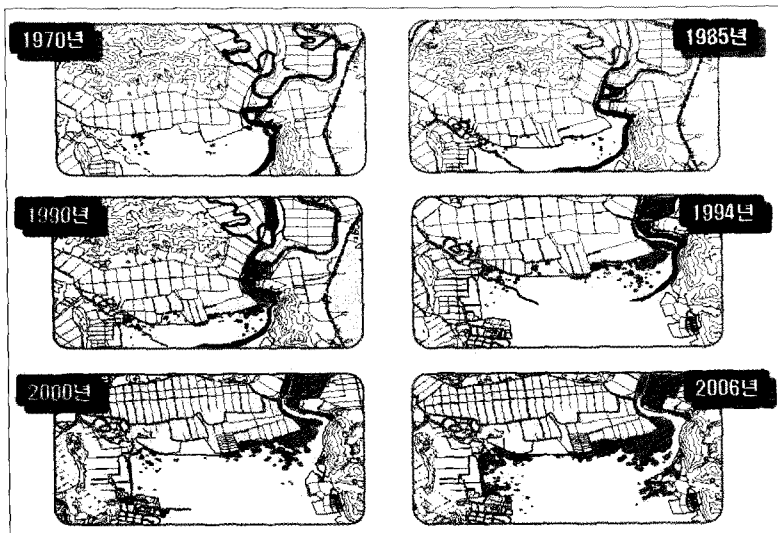


을 알 수 있다.

백제의 삼평군은 757년(경덕왕)에 승주군으로 되었으며 후백제(892~936) 박영규(朴英規)가 해룡성(海龍城: 현재 흥내동 통천)에 성진(城鎭)을 두고 무평(武坪), 즉 현재의 대룡동(大龍洞) 물고지(沙串, 모래곶이)에 치소를 두어, 무평(武平)군의 이름으로 다스렸다. 무평군은 자연지명'물고지'의 'ㅁ'자음과, 견훤이 나라를 일으켰던 무진주(武珍州,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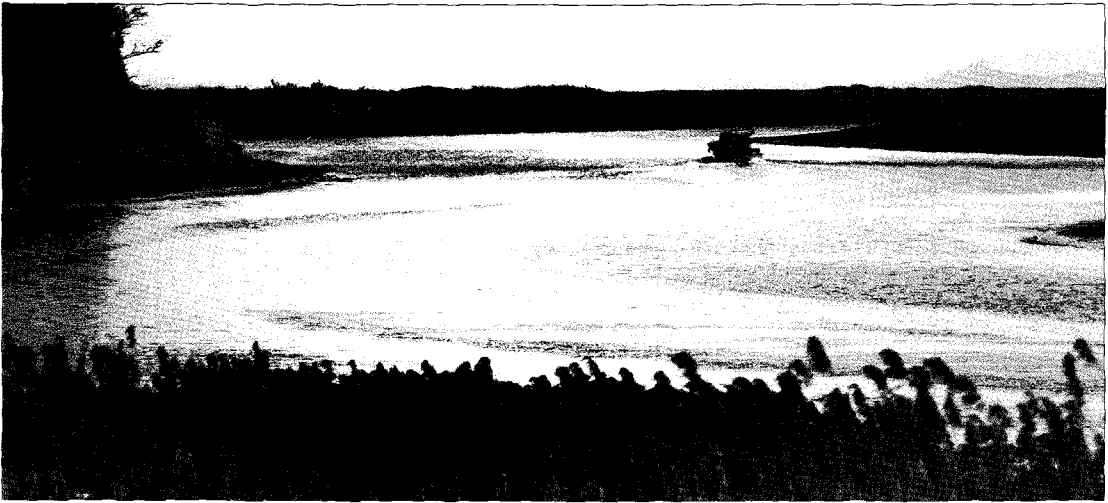
돌, 광주)의 '무'자를 딴 이름이다. 무평리(武坪里)의 이름은 현재 호적부의 제적부에 남아 있는데, 1962년 8월의 물난리로 52가구에서 7가구로 줄어들자 학동(鶴洞; 현재 동너리 학동)으로 이름을 고쳤다.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재의 순천시로 되었다.

나. 순천만 갯마을 이야기



〈그림 2〉 순천만의 변화와 갈대밭의 성장

순천시의 역사를 보면 순천의 지형에서 유래한 지명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주변 갯마을의 지명을 살펴보면 이름의 유래뿐 아니라 당시의 자연환경과 지금의 환경과도 비교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향토사학자이신 진인호 선생님의 『지명을 찾아서』에서 일부 발췌, 편집한 내용이며,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지명 과도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동천하구에서 본 순천만

해룡면(海龍面)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해룡산사(海龍山祠)가 있고 해룡창(海龍倉)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지도에도 해룡창이 현재의 흥내동 앞 갯가에 있다고 표시되었다. 그런데 순천사람들은 해룡창이 조운하는 곡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배에 싣고 마포의 경창으로 운송하던 곳이라고 하면 해룡창이 흥내동 앞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흥내동 뒷산이 해룡산인데 해룡면에 있는 산이 해룡산인 줄로 안다. 이처럼 지명이 바뀌면 전통의 맥을 바로 짚지 못하는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해룡산성(海龍山城)

통천, 금성, 흥두, 흥내, 오산, 오림마을 뒷산에 있다. 그래서 그 산을 해룡산이라 부른다. 문중섭씨에 의하면 토성이며 후백제 시조 견훤성이라 구전한다고 한다. 성곽 흔적, 유물, 설화 등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해룡산의 해룡토성자가 백제 때 읍지였을 가능성이 많다. 300여 년 전에는 향교가 흥내동에 있었다.

해룡창(海龍倉)

고려초에 해룡창이 설치되었다. 위치는 흥내동 인근에 위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해창포가 있었는데 이곳은 세곡 운

송의 포구였다. 해창포는 현 해룡면 해창리로 추측된다. 해창리는 동천과 이사천이 합류하는 곳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초부터 조선시대까지 순천시가 해상활동의 주요한 근거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순천만 갈대밭

오림정(五林亭)

옛날에는 정자 이름이었다. 『강남악부』의 오림사(五林祠)에 신목사 윤보라는 자가 흥내동(흥내동)에 물러나 살며 동천가 포구에 임해 정자를 짓고, 술, 매화, 비자, 유자, 대를 심어 오림정이라 이름을 걸었다는 기록이 있다. 정자는 쓰러져 없고 이름만 마을이름으로 남아있다. 근처에는 게들이 넘어 다녔다는 蟹峙(해치)라는 게고개가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바닷물이 시내까지 올라올 때에 도둑게들이 서식하면서

고개 주변에서 많이 관찰이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도사동 대대(大岱)

우리말 이름이 '큰 터', '한 터'인 듯싶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무도 모른다. 마을 앞이 '갯밭'이었는데 독을 막고 논을 일구어 마을 앞이 넓은 들이 되었다. 그 들 사이로 1962년 대홍수 이후에 이사천의 물길을 바꾸고 새로 난 물길과 예전에 이사천이 흘렀던 물길이 아직 남아 있어서 1970년대까지도 붕어 낚시터로 이름을 날렸다. 대대앞 들은 중원들(일본 인성씨), 큰들, 띠밭들, 물고지, 구강들, 새인안들 등의 지명이 있다.



〈그림 5〉 순천만 농주 칠면초 군락

금전(錦田)

1789년 『호구총수』에 연화(蓮花)라 적었다. 가을이면 빨갛게 익은 고추가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고 하여 금전(錦田)이라 개칭하였다. 금전마을 옆 골짜기를 '황새골'이라 부르고, 마을 앞에 바위가 막힌 섬을 '우렁섬'이라 불렀으며 우렁섬에 윤씨 집안에서 묘를 썼다. 이사천 물이 넘쳐 우렁섬이 질본질본 잠기면 윤씨 집안에서 그 해에 논을 산다고 한다. 황새가 우렁이를 먹으러 내려앉으려다가 물에 잠긴 우렁이를 못 먹기 때문에 묘가 물에 잠겨야 발복(發福)했다고 한다.

별량면 학서(鶴栖)

현재 학서(鶴棲)라 쓴다. 일제시대 때는 학서(鶴栖)라고 기

록하였다. 학서동(鶴棲洞)이라 불려오다가 1914년에 학서(鶴棲)라 개명하였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그리고 산세가 학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학서(鶴棲)라 하였다고 풀이한다.

화포(花浦), 우명(牛鳴)

갯가 포구다. 우리말 이름은 '꽃개'로 한자로 꽃포(串浦)가 된다. 그런데 꽃을 꽃의 옛말인 '꽃'과 형태가 같아 화(花)로 '개'를 포(浦)로 뜻옮김하여 화포(花浦)라 한자의 옷을 입혔다. 봉화산 자락이 흘러내려 바다에 자락을 묻고 자라목처럼 바다로 줄기가 내민 오른쪽 안에 마을이 있다. 바로 옆에 갯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을 '쇠우리' 또는 '쇠리'라 부르고 한자로 우명(牛鳴)이라 쓴다. 우명은 산세가 소가 우는 형세라고 우명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림 6〉 순천만 노월갯벌

마산리 거차(巨次)

거차(巨次)는 우리말 '꽃(串)'의 이두 표기이다. 이곳에는 천마산이 있다. 침산의 장군봉에서 장군이 말을 타고 순찰하다가 매복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고 주인 잃은 말은 그 자리에 멈추어 천마산이 되어 버렸다. 장군의 시신은 여(섬)가 되었다고 한다. 만조가 되면 사람이 죽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여(섬)를 '흔여'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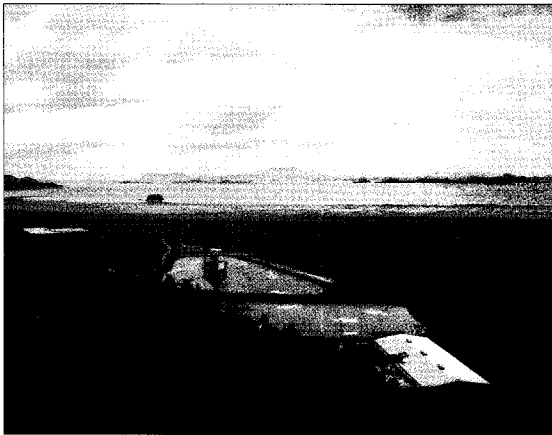
두고리 용두(龍頭)

용이 한가로이 구슬을 희롱하며 노는 형국이라 하여 용두

(龍頭)라는 풀이를 주민들은 믿고 있다. 그러나 용은 풍수설에서 산줄기를 뜻한다. 산줄기가 뻗어 나가다가 뭉뚱하게 잘린 듯이 불거진 부분에 용두란 이름이 붙는다. 우리말 이름은 '용머리'다. 머리는 두(頭)의 뜻도 있지만 '발머리', '논머리'처럼 어떤 경우에는 '밭' 또는 '결'의 뜻도 있다. 용두는 갯마을이다. 마을 앞에 크고 작은 섬들이 있다. 황새등은 옛날에 섬이었지만 독을 막아 지금은 물이 되었다. 마을사람들은 흰돌이 황새 형상 같다고 황새등이라 부른다.

농주리 농주(弄珠)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새터'라 불렀다. 마을을 '파랑바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랑바구' 불렀는데 소리가 변해 지금은 파랑바구라 부른다. 순천대 박물관에서 발굴한 파랑바구는 지식묘로 밝혀졌다. '채경들', '장개산' 등의 지명이 있지만 아직까지 마을 이름을 찾을 수 있는 지명을 찾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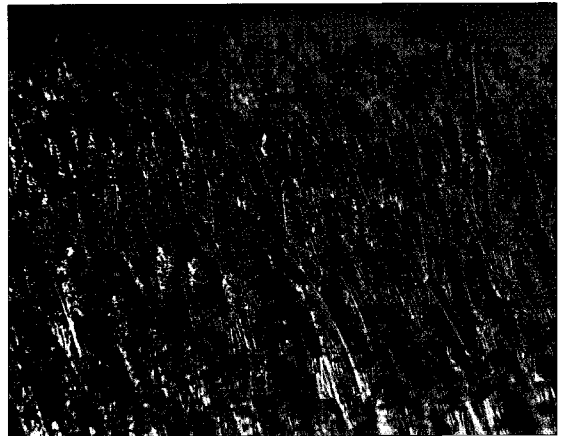
(그림 7) 순천만 농주갯벌 양식장

노월(渚月)

마을 앞에 있는 산인 등천이 활처럼 굽어 바다를 가리고 있는데 이 등천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면 조그마한 사시섬의 바닷가에 있는 갈대밭에 달이 떠서 비칠 때, 마치 그 섬이 배에서 노를 젓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노월이라 이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지명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한자에 얽매어 그렇게 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1930년대에 마을 앞을 막아 5ha 농지를 만든 뒤로 마을 앞까지 배가 드나들지 못한다.

해창리 해창(海倉)

갯마을이며 읍촌으로 장이 옮겨가기 전에는 이곳에 장이 있어서 지금도 '해창장터'라고 부른다. 공세를 받아 마포에 있는 경창으로 조운하던 창고가 있던 해창이 없어지고 지금은 마을 이름이 되어 쓰이고 있다. 해운 조운창의 준말인 해창이라는 말은 창고 곧 건물 이름이지 마을 이름이 아니다. '뒤 돛', '새터', '청룡'이라 부르던 마을이 해창 마을 안에 있다. 마을 사람들은 용두포까지 갯별인데 배가 다니도록 강바닥이 패여 있어서 뱃길이 열렸다 한다. 이외에 '선질바구', '선두창(뱃머리)', '해창강', '사천묘', '영골(魚隱谷)', '모개나무등', '밤섬' 등의 지명이 있다.



(그림 8) 순천만 갈대

선학리 무룡(舞龍)

용산이 뻗어 나오는 형세가 마치 용이 순천을 향하여 춤을 추며 거어가는 것 같아 무룡이라 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용산이 밥을 주밭에 수북이 담아 놓은 것 같다고 '밥봉'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설득력이 약하다. 마을 중턱에 '똥섬'이 있고, 마을 앞에 '뱀산'이 있다. 이 뱀산에 나무가 없으면 '죽은 뱀산이 되기' 때문에 마을에 흉년이 계속 들고 숲이 우거지면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다.

선학(仙鶴)

앵무산 아래 마을로 앵무산의 순우리말 이름이 '꼬꼬산'이다. '꼬꼬'를 앵무로 미화하여 앵무산이라 한자로 표기한 것 같다. 한자로 곡고(穀庫)라 한다. 황새머리처럼 우뚝 솟아 있



(그림 9) 동천하구 - 하도정비구간갈대 없는 부분

는 학봉에서 신선어 터를 잡아 주었다고 선학이라 이름 하였다고 마을 사람들이 말한다. 이외에 양마산, 고란골, 서당골, 계당마을, 굴들, 새난들, 그레들의 지명이 있다.

상내리 와온(臥溫)

가장과 접한 마을이다. 우리말 이름이 '눈데미' 또는 '누운데미'다. 어느 스님이 산에 올라가 봉우리에 있는 바위를 보니 마치 소가 누워 있는 것 같고 산 아래에 따뜻한 물이 흐른다고 와온(臥溫)이라 하였다고 하나 이는 한자에 얽매인 풀이다. '눈데미'를 '누운'과 '데미'로 나누어 '누운'은 와(臥)로 '데미'는 '불에 데다'의 뜻으로 생각하여 온(溫)으로 뜻을 김한 이두표기의 이름이다. '큰동네', '아랫동네', '와온뚝' 세이며 바닷가에 선착장이 있다.

위의 지명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유독 불과 새들에 관련

된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자연적인 지형과 지세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수해를 많이 입은 곳이기도 하다. 이런 연유로 이후에 나타나는 순천만습지 보전운동이라는 새로운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자연을 이용이나 개발이 아닌 자연그대로의 생태로 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순천만습지 보전운동의 역사

가. 갈대밭에 무슨 일이 있나요?

10여 년 전 이곳 순천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동천 하구에는 그 동네사람 말고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하늘만큼 키 큰 갈대밭과 안개 가득한 포구, 갯벌이 있었다. 1993년부터 준비되어온 동천 하도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대주민들과 시민

단체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순천만은 개발과 보전의 격론장이 되었다.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하구 생태계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부재와 하천 직강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갈대밭은 천연의 자연정화시설(당시 순천시는 하수처리시설이 없었음)이며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준 훌륭한 자연유산으로 허가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림 10〉 순천만 흑두루미

순천만을 지키기 위한 시민위원회 결성과 토론회, 시민홍보, 한겨레 ‘습지가 사라진다’ 기획기사와 동아일보, KBS 등 중앙언론을 통한 동천 하구 갈대밭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게 하였다. 한편 법적 대응으로 감사원에 골재채취 허가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순천시의 감사를 요청하였다. 이렇듯 갈대밭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였지만 그 끝은 순천만의 안개처럼 아득했다.

나. 순천만의 가치발견과 보전인식의 확산

1996년 10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된 습지보전 국제세미나에 당시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의 김경원 간사가 참석하여 습지보전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기본적 없고 들어본 적 없던 순천의 동천 하구는 참석한 전문가들의 관심 밖이었다. 세미나 장소 한 켠에 전시된 사진 속에서 새를 유심히 살피던 고 김수일 교수님(한국교원대), 작은 지역 단체의 눈물겨운 호소를 귀담아 듣고 연대에 마음을 아끼지 않았던 이인식 선생님(당시, 마창환경연합 사무국

장) 이들과의 만남은 동천 하구 갈대밭 보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6년 11월 16~17일 순천만 생태 첫 생태계 조사 때 교수님 한 분이 하늘을 가리키며 “황새다!” 숨죽여 새들을 관찰하던 일행 모두가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그 힘겹던 ‘순천만 지키기 싸움’도 함께 일어섰다. 그날 황새를 비롯해 저어새,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 세계적 멸종위기종들이 5종 이상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순천만 갈대밭과 갯벌은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생태계임을 이후 생태계 조사와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1998년에 골재채취사업은 취소되었으나 순천만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정에 수년간 주민들과 대립하고 갈등하게 된다.



〈그림 11〉 순천만 탐조활동



〈그림 12〉 순천만 생태교육

순천만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진행된 생태계 조사는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구심점

이 없어지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개인들 간의 결과물에 그치고 있다. 갈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순천만의 상징으로 알려진 흑두루미는 매년 개체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의 서식지는 줄어들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농민이나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순천시에서는 이런 공감대 부분보다는 시설이나 활용계획이 먼저인지 시설물 공사에 치중하는 느낌을 든다. 순천만 생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면 지난 12년간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을 토대로 해나가면 일의 순서나 경중에 대한 것들은 정리 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만의 생태를 가장 많이 내부와 외부로 알린 것은 순천만 갈대제였다. 처음에 소박하게 출발했던 갈대제는 처음 몇 년간은 민간주도로 하다가 이제 순천시 주도의 통합축제로 되었다. 행사는 커졌지만 초창기 보전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미진한 것들이 많다. 갈대제가 진행되면서 지역민들의 소외감이 한때 커지기도 하면서 순천만 생태계 보전운동이 좌초될 뻔도 하였다. 그 외에 순천만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생태계 조

사 외에도 학생이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생태교실, 생태기행, 토론회, 주민간담회, 순천만위원회(초창기에 유명무실하였다가 사라짐)와 같은 행사나 일을 통해서 지역민과 국내외 사람들에게 우리지역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의 우수성과 함께 지역민들이 그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했다.

순천만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랍사사이트 등록까지 되었지만 실질적인 보호에 필요한 순천만 생태계에 대한 장기보전계획과 습지보호지역 주변관리지역에 대한 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된다는 것처럼 지난 10여년의 순천만 생태계 보전운동의 역사는 고난, 기쁨, 좌절, 울분, 분노, 희망 등 여러 가지가 뒤섞여있다. 분노와 좌절, 울분 등은 버리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보전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지난 10년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계획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순천만에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리라. 🌍

